

# '다양한 예술공연 · 전시 맘껏 즐겨요'

### 익산예술의전당 문화예술사업 국비 확보 · 지원사업 공모 대거 선정 등 풍작

익산예술의전당(관장 김영희)은 올해 한국문화재단연합회와 각종 재단의 국비 등 지원사업 공모에서 대거 선정되는 등 풍작을 이루었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올해 한국문화재단연합회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창작극과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9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한국문화재단 등의 사업에도 참여해 총 14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게 됐다. 이는 다른 문화재단의 국고지원이 3~5건에 만족하는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되는 성과로 해석된다. 특히 국립창극단의 '변강쇠'와 '죽림'은 전국의 모든 공연장에 인기가 높은 공연으로 전당이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익산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자체예산으로는 다양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원받는 공연 중 국립창극단의 '변강쇠'와 '죽림'은 관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티켓을 용녀를 주인공 삼아 유쾌하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기존 변강쇠티켓에서 변강쇠에게 둘러싸인 시선에 점을 찍고, 박복

하지만 당한 여인 용녀를 부각시킨다. 또한 용녀 부부가 도방살이를 하면서 만나는 민초들을 통해 오늘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해석적 이야기를 풀어낸다. 명품극악공연 '굿보라까'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오정해 사회로 오고무와 풍물로 문을 연 후, 관람객과 함께 하는 연희단 도내개방의 사자춤을 선보인다. 콘서트 '봉물원에 여행가자'는 거리에서, 변해가게 등 80~90년대 중장년층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그 시절 유명했던 대중문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극 '정조와 햄릿'은 배우 남성진이 출연하는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유명 희곡인 햄릿과 창작극악공 전통연희단의 풍물 등의 한국의 전통 예술과 어우러진 작품이다. 더불어 '내 나이가 어때서 청춘합창단'은 노인인구 증가로 중장년층의 문화생활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속 4년째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현을 시장은 "국비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많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적극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익산시,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일성저리산리조트에서 14개 지역 농협들과 지역의 농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체계 구축의 선진 사례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견학을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공급전략에 대한 특강과 농업인 행정, 지역 농축협이 한자리에 모여 익산시 지역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분과별 토론회로 진행됐다. 지역농업 발전계획은 2017년 4월 발족한 상생협력단의 지속적인 협의의 성과로 농업인과 익산시, 14개 지역 농축협이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워크숍은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의 수

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익산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5대 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쌀 분과에서는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원예 1~2분과에서는 생산자 조직화와 탐마루 조공법인 활성화 및 거점 APC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사업 분과는 로컬푸드와 연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과 가공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분과는 한우 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용역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지역 농협들과 익산시가 협력을 통해 수행할 계획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는 최상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를 재정비했다.

## 최상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앞장

###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 재정비 500만 관광객 유치 나서

군산시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스토리 전개 등 최상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를 재정비하며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먼저 전문적인 지식습득 추구 성향을 가지며 특별한 흥미나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군산을 찾고 있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그에 맞는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집중 배치했다. 또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해안 절경을 중심으로 선유림경, 장자할배 바위 등 천혜의 해양자원과 신석기시대 유물 송산행궁터, 송방(배 만드는 곳),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곳(명랑해진 후)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동행투어를 통해 설명해줌으로써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아울러 경암철길마을의 꼬마기차가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주목받아 평일에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중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 군산 대표관광

지의 안내를 비롯한 맛집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편 없이 군산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관광객이 정해진 시간(10:00, 10:30, 13:00, 14:00, 14:30)에 근대역사박물관 로비로 가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요 관광지를 동행하면서 상세한 해설과 안내를 해주는 '동행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군산의 근대역사, 초원사진관 등 130여 편의 영화촬영지 등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예비후보 '클린선거제안'

채정룡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클린선거제안'과 함께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나온 기자회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인 만큼 이에 따른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군산지역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탈락 무소속출마, 비방 및 음해금지, 경선불복 및 탈당,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관련자는 자진사퇴 권여와 이에 불복시 공천심사 불이익까지도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관내 5개 지역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추진

익산시는 지역 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45백만원을 투입해 2017년 4개 지역에 이어 올해도 관내 5개 지역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국가지하수 관측망을 보완해 지하수의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오산, 낭산, 삼기, 영등동, 정족동 지역이며, 3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엔 설치되는 보조관측망은 수위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자동 관측하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설로 측정자료의 정확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 및 주민친화시설 등의 건립방향과 규모, 개략사업비 산출 등을 위한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28일 오후 4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을 수행하는 건축,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등의 관계 전문가들이 나서 익산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익산시, 익산시의회, LH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은 지난해 12월 2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익산시는 주민친화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 및 직

원 설문조사와 함께, '찾아가는 소통마당'이란 시민과의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권역별로 시민들에게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추진해 왔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익산시는 본격적으로 각종 사례조사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청사에 대한 윤곽을 만들어 가며 시민과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와 LH가 오는 4월경에 리뉴얼사업 추진에 따른 수의모델 등의 구상을 위한 사업모델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익산시는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청사, 주민친화시설, 수익모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도출시킬 계획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 군산시,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6억7000여만원 투입

군산에서는 소나무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6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산수유 등의 큰나무공익조림과 재해 예방조림을 조성한다. 큰나무공익조림은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림이며, 재해예방조림은 산사태, 태풍,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조림이다. 시는 27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관내 9개 지역 15ha의 큰나무공익조림 대상지에는 이팝나무, 팔메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등 4500여 그루를 심고 재해예방조림 대상지 60ha에는 편백나무 10만 4000여 그루, 도서지역 5ha에 편백나무 8600여 그루 등 총 85ha에 11만7000여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또한 조림 이후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주대 등을 설치하고 풀과 덩굴도 제거해 어린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5년 4월 소나무재선충이 최초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모듬베기 방제 및 예방활동과 예방나무 주사 등으로 피해고사목 및 방제 대상 분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 감염으로 훼손된 지역을 빨리 복원시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숲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 전하며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 행복돌봄 센터  
꿈·환·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